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0주일
제33권 38호(다해) 2013-8-18

[묵사]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
으면 얼마나
좋으랴?"

<엘그레코의
성령강령 부분
16c,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사랑의 불을 지르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타오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참된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상,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와 반대하는 이를
서로 갈라놓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불이 아직 타오르지 않아,
세상은 여전히 갈라져 있기만 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불씨,
타오르게 하는 이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열시켜 놓으신 세상,
예수님 편으로 모아들이는 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
저희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서로 맞서 갈라진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참 평화의 세상입니다.

- 樞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언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이윤조 클라라,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녜스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모춘기 바오로, 유정복 베네딕도, 나성훈 안드레아, 임현기 마르코,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김금점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신재진 프란치스코, 조경림 요셉, 김종윤 (생)이윤조 클라라, 엄효수 베르나르도, 박종렬 토마스아퀴나스 & 박보숙 아녜스, 조성운 클라라 & 박정현 베네딕도, 정진환 알베르토, 김씨니 클라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서(Jeremiah) 38,4-6,8-10

화답송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외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루카(Luke) 12,49-53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성호경	241	200
봉헌	401	269	259
성체	Here I am to Worship	301	291
파견	Lord I Lift Your Name	246	25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종교간 대화

▶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의 대화

사회적 정치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 사이의 구분을 염두에 두면서, 종교들은 공동선을 위하여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주교회의들이 적절하고 유익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이 서로 더 잘 알기 위한 만남들을 장려함으로써, 평화롭고 긍정적인 공존을 위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촉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 타종교와의 대화

119). 또한, 여러 대륙들의 오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에 대한 교회의 존경도 밝히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민족들 사이의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는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불교의 생명 존중, 관상, 침묵, 단순성, 힌두교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과 희생과 단식, 유교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존중 등 그들의 종교서적에 표현된 가치들에 공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종교 표현들에서도 창조주로 인식되는 하느님의 초월성에 대한 관심, 생명과 혼인과 가정에 대한 존중, 강한 연대감 등이 있음을 알아봅니다.

▶ 대화와 종교의 자유

120). 그러나 각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추종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무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여러 종교의 추종자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면서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고백할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실상, “존경과 대화는 모든 영역에서, 특히 기본적인 자유에서, 더 특징하게는 종교 자유에서 상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존중과 대화는 민족들 사이의 평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결론

▶ 하느님의 최종적 말씀

12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의 결실들을 모으고 심화하는 이 고찰들을 끝맺으며, 다시 한 번 하느님의 백성 전체와 목자들,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들에게 성경과 점점 더 친숙하게 되도록 노력하기를 권고합니다.

모든 진정하고 살아 있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듣고, 기념하고, 묵상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뜨거운 여름에 듣는 평화 이야기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49)

월평균 최고기온이 29.5℃인 8월에 듣는 복음 말씀치고는 너무 뜨겁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루카 12,50)라고도 하시니 시원한 물세례를 상상하며 불이 주는 뜨거운 느낌을 떨칠 수 있을까요? 월평균 강수량이 348mm나 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빗물로 불벌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처럼 가벼운 말놀이를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루카 12,51) 주님의 도전적인 질문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주님은 원래 “평화의 주님”(2테살 3,16)이 아니신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확대하거나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던 분이 아니신가요?(루카 6,27-28 참조)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사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몰아부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맞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당신이 그토록 타오르기를 바라는 ‘불’, 그리고 당신을 그토록 짓누르는 ‘세례’와 연관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형식적인 물의 세례가 아니라, 당신의 수난과 죽음으로 완성되는 참된 정화의 세례입니다. 이 불은 온갖 죄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심판

의 불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로마 6,3)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애매한 태도로 양다리를 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며 “반대를 받는 표징”(루카 2,34)이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간교한 대신들의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고, 게다가 매국적으로 들릴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치드키야 임금(기원 전 597-586)에게 주님의 말씀을 조금의 가감도 없이 고함으로써 죽을 위험을 자초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는 말씀이,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중 첫째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 불가침권입니다.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거스르는 것이며, 따라서 구속력을 상실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희칙 71항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부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LA대교구 다민족·다문화축제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28일 오전 10시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오전 9시30분 전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기념책자 발행 및 배포 : 광고 및 도네이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LA대교구(Office of Eth-
nic Ministry : 3424 Wilshire Blvd. LA, CA 90010)로
신청하십시오.
- 문의 : Michael Lau ☎(626)487-1292
E-mail ; michaelauccc@gmail.com

◆ 아이티(Haiti)꽃동네 선교모금 참여 감사드립니다.

백삼위한인성당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성당 청년들로 구성
된 선교팀(BMI : Bridge of Mission International)이 오는
8월30일(금) 아이티 꽃동네로 봉사활동 및 단기 미션을 떠
납니다. 지난 주일 백삼위본당에서 그곳 이웃들에게 쓰여
질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교우분들께서 \$2,350을 후원해주
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BMI 리더 이요셉 안젤로 드림.>

◆ 대건회 음식판매

- 일시 : 오늘주일(18일) 낮미사후 친교장에서 점심용
시원한 콩국수를 판매합니다.(\$3)
- 각종 밀반찬(\$5) : 멸치볶음, 무말랭이,
장아찌, 오징어채 등
- 문의 : 서성용 베드로 대건회 회장 ☎(310)686-3587

◆ 제72차 남가주 한인 M.E.부부 첫주말 강습

- 일시 : 9월13(금)~15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아씨시 피정센터
- 신청서와 등록비 : 부부당 \$50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정병옥 율리아
본당대표부부 ☎(310)780-9055

◆ 영신수련 피정에 초대합니다.

- 일정 : 오늘주일(8월18일)부터 9개월간
- 대상 : 기도를 배우고 기도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원하는분
이나시오영성에 따른 하느님과의 삶을 원하는분.
- * 내용 : 하루 45분기도, 지도신부님과 개별영적지도(매주
또는 격주), 6차례 강의와 전례나눔
- 지도 : 이상훈 요한 신부(LA대교구사제, 영성신학전공)
- 첫모임 : 오늘주일(18일) 오후 1시30분 백삼위본당
- 문의 : 이베로니카 ☎(213)247-0136

◆ 아동비만방지 제3회 '사랑나누기 마라톤대회' 참여합니다.

- 일정 : 9월14일(토) 오전 8시~낮 12시
- 출발점 : LA 윌턴극장앞(윌셔+웨스턴)
- 행사스케줄 : 현장등록(오전7시), 종목(5K, 10K, 휠체어)
시상식축하공연과 건강엑스포(오전10시)
- 참가비 : \$10(10세이하는 참가비 없음)
- 참가신청 : 해피빌리지 ☎(213)368-2607
- 문의 : 백삼위 마라톤동호회 회장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채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채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후원 : 미주한인가톨릭방송
- 접수 및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녜스
☎(310)780-0369

◆ 친교자리 배식 때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기다리는 순서
를 양보합니다.

- 8월 한달은 소공동체가 봉사하는 친교자리(점심나누기)
가 없습니다. 오늘주일(18일)은 예외로 대건회의 음식판
매가 있지만 정규 친교점심은 9월부터 재개합니다.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간혹 무질
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양
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부금	권태만	김관기	김교복	김상규	김양금	김영경
	노찬술	노혜숙	박광자	박선희	박영희	서영주
	안민수	원건희	유철희	윤석구	이남현	이상곤
	이석재	이인두	이일길	이호세	정규숙	정열모
	정혜영	조경환	조준재	주영석	최기호	최의수
	최진수					
	합계 : \$3,365					
주일미사 헌금 : \$2,694						
성전헌금	권태만	김관기	김교복	김양금	노찬술	노혜숙
	박선희	안민수	원건희	유용건	유철희	이남현
	이상곤	이석재	이호세	정규숙	정열모	정혜영
	조준재	최기호	최진수			
	합계 : \$2,325					
감사헌금 : 신순철 정열모	한남체인도네이션 : \$280					

공지사항

- ◆ 주일학교 견진교리반 학생모집 (2013~2014 학년도)
 새학년도 주일학교 시스템 운영이 전면 바뀌면서 견진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접수 : 본당 사무실(방학기간동안)
 - 첫모임 : 8월25일 오전 10시30분 회의실 -부모 참석)
 - 문의 : 신동윤 벤체시오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두번째주일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1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후보 광고에 협찬해주시는 스폰서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후보에 게재되는 교우업소를 애용합시다!

남가주 소식

- ◆ 정구평 신부(예수회)의 특강 '식별의 삶'
- 일시 : 8월22일(목) 오후 7시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
 - 주최 : 그리스도인의 생활공동체(미서부지역)
 - 문의 : 정도로테아 ☎(818)321-9505
- ◆ CLC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정구평 신부(예수회)
 - 장소 : Prince of Abbey(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 문의 : 하세실리아 ☎(323)578-2230
- ◆ 테메쿨라 꽃동네 가정성화 피정에 초대합니다.
- 일정 : 9월20일(금)~21일(토) 오후 2시 파견미사
 - 지도 : 정창용 타데오 신부(예수의 꽃동네형제회)
 김태영 야고보 수사(예수의 꽃동네형제회)
 - 참가비 : \$80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성경, 성가책
 - 문의 : ☎(951)302-3400 전해경 발트로메오 수녀
- ◆ 로올라 영성센터의 영신수련(9개월과정)
- 일정 : 2013년 9월~2014년 6월
 - 제목 :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영신수련으로의 초대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장소 :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허레지나 ☎(714)606-6670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유현자 안나 483-5476 8/3(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634-9631 8/10(토) 오후 7시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9(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할리웃보울 8/17(토) 5:30pm 월슨파크 출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홍광선 요셉 999-5808 8/10(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8/9(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8/16(금) 오후 7시 강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8/13(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8/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365-2183 8/19(일)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8(주일) 오후 1시 피크닉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518-1736 8/16(금) 오후 7시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김명재 아가다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착하게 살아왔지만,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없는 아빠와 밖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아쉬울 것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아빠중에 누가 더 좋은 아빠일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이렇게 대비되는 두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적 고민에 대해 교회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르 10, 25)

그러나 신앙심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한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문명이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한 방법조차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통의 사람들이 평생 일을 해서 모아도 쉽게 장만하기 어려운 집값이며, 아이 때부터 들어가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이 생각날 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뜻밖의 운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박탈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모두 부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가난과 풍요에 대해 모순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성경 말씀은 이러한 저의 고민을 씻어주었습니다. 단 몇 명의 선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서는 ‘그렇구나!’

많은 부정과 불의에도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풍요를 가져다주는 모순이 난무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아직은 충분히 이 땅에 살고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가난하지만 행복한 아빠들이 웃으며 사는가 봅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나도 그들중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김 영 일 바오로 /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진화의 완성점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인간창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흔히 창조론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표현됩니다. 문제는 성경의 창조이야기를 과학적, 역사적 설명으로 잘못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론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민족이 당시 중동의 여러 창조 설화를 이용하여 하느님에 대한 창조 신앙을 표현하는 상징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창조 신앙은 결코 진화론과 대립되지 않습니다.

최근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편협한 과학적 진화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 신앙에 입각한 올바른 진화론을 제시합니다. 오직 물질의 법칙과 생물의 본능과 욕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의지가 바로 인간을 포함, 온 우주의 진화 과정을 이끌고 그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창조론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단지 자신의 욕구와 본능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국 하느님에게 순수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랑과 자유의 능력을 지닙니다. 이 능력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세상의 진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느님의 모상이게 합니다.

특히 떼야르 샤프탱은 진화의 완성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완성 원리는 예수님을 통해 절정을 이룬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구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과 세상의 성장과 진화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

매달려있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일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놓지않고 버티는 것뿐이더군요.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나. 결국 놓아버린다면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로부터 어디로, 얼마만큼 멀어질지 가늠조차 어려울테니.

◆이영 아녜스 / 수필가